



아인즈프린텍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리스론 G40 신규 도입...고모리 회장 등 국내외 인사 참여

아인즈프린텍(대표 윤민호)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5시 고모리 대국전 리스론 G40 신규 도입을 기념해 파주출판단지에 위치한 사옥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 등 많은 국내외 귀빈과 인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고모리코퍼레이션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 고모리 해외영업본부 츠가와 토시유키 본부장, 일진 피엠에스(주) 박경재 대표이사 등 고모리 측 관계자와 김정선 보진재 대표 등 인쇄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민호 대표와 고모리 회장의 인사말, 건배제의, 장비설명 및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윤민호 대표 “고부가가치 인쇄에 매진할 것”

윤민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픈하우스 행사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이 바쁜 시간을 쪼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 인쇄기술이 발

전하는데 고모리의 역할은 무척이나 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의 인쇄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 대표는 또 “G40 도입을 통해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인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윤민호 대표와는 지난 30여년간 매우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래서 아인즈프린텍에 고모리 외에 다른 인쇄기가 있으면 이상할 정도다. 고모리의 최신 기종인 리스론 G40 도입을 통해 아인즈프린텍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 67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업계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선 (주)보진재 대표이사는 “아인즈프린텍의 최신 인쇄기 도입을 축하하며 파주출판단지라는 한 공간에 있는 만큼 좋은 협력자가 됐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최신 인쇄기 도입을 축하하며, 회사의 발전을 바란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 리스론 G40 시연이 진행됐다.

최신 자동화기능 장착한 고모리 G40 도입

아인즈프린텍이 도입한 고모리 대국전 리스론 G40은 빠른 작업준비를 위해 자동판교환장치와 자동세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판 끼기가 필요없는 ‘전자동 판 교환장치’는 판 교환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4개의 판 교환에 필요한 시간은 2분 20초에 불과하고, 작업전환은 7분내에 완료된다. 또한 블랭킷, 압통, 잉크롤러의 세척작업은 전자동화돼 조작패널의 화면을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작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벤졸과 같은 세척제로 직접 세척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고생산성과 고품질 인쇄를 위해 KHS-AI와 PCC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 데이터를 받고 CTP 워크플로와 연결된 PCC 소프트웨어로부터 사전 설정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를 통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색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KHS-AI는 자기학습기능을 통해 인쇄품질이 항상 일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며, 기계 트러블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동기록 및 상황이력, 인쇄기 유지 보수 데이터까지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전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 작업 시작까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모든 공정을 마칠 수 있는 ‘스마트 스퀀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스퀀스’는 작업을 마치면 잉크 리무빙, 블랭킷 세척, 종이사이즈, 두께 및 에어 사전설정, 압통 세척 및 자동 판 교환, 사전잉크 주입 및 레지스터 사전설정, 시험인쇄를 6분 20초 안에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능이다.

G40은 시간당 1만6500매를 인쇄할 수 있으며, 최대 종이사이즈는 720×1030mm, 최대 인쇄사이즈는 710×1020mm다. 40~800g/㎡의 종이에 인쇄가능하며, 500g/㎡까지 그리퍼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윤민호 대표는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요구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쇄사에서도 최신 기술을 도입해 단납기 요구에 대응하고 작업준비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 끝에 고모리 G40을 선택했는데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



1. 박경재 대표이사, 윤민호 대표,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좌측부터).
2. 인사말을 하는 윤민호 대표
3. 축사를 하는 고모리 회장
4. 건배제의를 하는 김정선 보진재 대표이사
5. 최근 도입한 고모리 리스론 G40인쇄기